



주 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부활 제 2 주일” (다해)	2007년 4월 15일
복음 묵상:	요한 20,19-31	사도 5,12-16	묵시 1,9-11 7.12-13.17-19

평소 늘 예수님이 '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제자들조차 듣고서는 믿지 못했고 다만 '뵈'으로써 믿었다는 점이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묵상 거리를 줍니다. 우리들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신부님의 강론과 교리, 그리고 영성가들의 서적을 통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남들로부터 들은 것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도 듣고서는 안 믿었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토마스의 불신앙을 비판하지만 어쩌면 토마스처럼 '보고 만져보아야' 믿는다는 불신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제자들도, 토마스도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마태 28,7) 우리는 예수님을 갈릴래아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척박하고 가난한 그곳, 예수님이 살아생전 늘 함께 했던 그 갈릴래아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의 갈릴래아, 나의 갈릴래아는 어디인가 찾아보는 부활시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총을 청해봅니다. (원주 최종복 신부님 강론 중에서)

성가대 소식

- 축 부활:**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과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히 내려 항상 기쁨 안에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Happy Easter!!!**
- 가족 동정**
 - 조경자 율리아나 자매님(소프라노 팀장)께서 다리가 아파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청하여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 한국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어 급히 4/8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가족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편안히 다녀오시기를 기도 중에 기도하여 주십시오.
 - 이대원 요한 형제님 4/9(월) 2 주간의 여정으로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셨습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13(금) 3 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1 개월 후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 최상진 엘리자벳 자매님이 온 가족과 함께 유럽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여행중인 모든 가족들과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복음 [요한 20,19-31]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8)
“My Lord and my God!”